

해수부 장관, HMM 본사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 참석

- HMM 노사,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하고 북항에 랜드마크 사옥 건립도 추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목)에 서울 여의도 쉐닝톤 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지만,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이번 합의를 통해 5월 8일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후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해주신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지환 (051-773-5720)